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6호 【루게 제25074호】 주제 104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철동차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후 새로 만든 지하철동차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7월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 식의 지하철동차를 만들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개발과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판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였으로써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지하철동차를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하셨다 하시면서 10월 10일까지 지하철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철동차의 형태와 색깔, 기술적특성, 의장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하철동차가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특성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형태와 색깔을 잘 선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하철동차의 운전이 편리하게 현대적인 전동기와 제동 및 조종장치들을 제작설치하였으며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줄수 있도록 의장품들과 운행정보장치들도 잘 만들어 갖추어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과학자,



대단히 중시한것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들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수입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에게 전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본태가 어려워있는 지하철동차는 자신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하시면서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기에 마음은 든든하며 사회주의조선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후터워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하철동차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나이와 같은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 식의 새로운 지하철동차를 만들어보았으니 앞으로는 10월이 더 빛나게 되겠다고 하시면서 고귀한 땀방울로 당과 인민에게 드리는 훌륭한 열매를 마련한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에게 조선로동당의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합심하여 새로 만든 지하철동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교통운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하철동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것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이번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수준의 지하철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지하철동차의 안전성과 믿음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의장품들의 요소요소를 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없이 만들어 설치하며 지하철동차의 차체와 도장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현대적인 지하철동차를 계획생산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기업소를 돌아보면서 과업을 준대로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철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 식의 지하철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끓어번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지하철동차를 우리 식으로 만들수 있는 비결은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믿고 달려붙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이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하늘에는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들이 날고 지에서는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지하철동차개발생산을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영웅적로동계급으로 억세게 자라난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발휘하여 전기기관차, 객차, 지하철동차를 비롯한 차량생산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기업소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충정의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 높여온 자랑스런 력사

조선혁명은 총체와 함께 사상의 위력, 뜻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위업이다. 혁명의 뜻대가 든든해지자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투쟁으로 고무추동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우리의 사상전진지를 끝까지 옹호하고수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낮과 함께 뜻대를 새겨넣은 첫 시기부터 백두산위인들의 거룩한 영도의 손길아래 혁명적출판 보도물의 위력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왔다.

조선로동당출판사의 궁지높은 70년력사가 이것을 웅변으로 전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는 백두산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당시상교양자료들을 편찬 발행하는 우리 당의 위대한 출판선진기관이다.

당창건 7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한 크나큰 환희와 격정속에 창립 70돐을 맞이한 이곳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지금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아래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을 높여온 잊지 못할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뜻대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투쟁으로 고무추동하기 위하여서는 뜻대를 중시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투쟁의 정세에 매우 복잡하였지만 우리 당은 창건하신데 뒤이어 출판사를 내오시였으며 전후 나라의 경제현정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도 출판사를 우리 당의 믿음직한 출판선진기관으로 꾸려주시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의 70년력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장 위대한 무기로, 유일한 무기로 뛰어넘었고 우리 당 출판선진사업을 진두에서 장격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활동역사이며 사상전진을 혁명과 건설의 전초선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을 새겨서 지피시어 최후승리의 전격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에 하시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역사이다.

입체적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명도 하시며 남에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물 건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당을 창건하는 것과 함께 출판선진기관을 창설할 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주제 34(1945년) 10월 23일 그이께서 열흘간 당창립대회에 참가하였던 각 도 당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선언에 대하여》를 당행본으로 출판하는 것으로 자기의 창립을 온 세상에 전고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가 창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널리 해설전하여 대중을 광범하게 교육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이 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정력적이고 세심한 영도의 손길아래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창립후 한해만에 수령님의 로작 《최초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문제에 대하여》를 정중히 싶은 당의 정치적 리론잡지를 창간발행하는 성과도 거두어주셨고 《보통보통투회 회상면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혁명전통 교양자료들과 수많은 도서를 편집 발행하면서 창립 첫 시기부터 혁명적출판사업에 능글맞고 능글맞은 활약을 펼쳐나오시였다.

어머수령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출판사가 창립된 후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려움 시기에도 출판선진으로 안건하고 조용한 곳에 자리잡게 하고 출판소일군들의 사업과 생활 조건을 늘 돌보아주시고, 자신께서는 그 때 벌써 해방후 조국땅에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출판기지를 꾸릴 수 있을 줄도 모르고 하시며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과 함께 조선로동당출판사 창설사업을 맡아주시고 더군다나 잡아주시였으며 여러차례 전선현장을 찾아주시면서 출판사업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의 사업과 생활조건보장에 깊이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였다.

주제 36(1947년) 11월 3일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출판사의 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면서 로동당출판사의 사업은 당분론을 비롯한 당시상교양자료들을 더 잘, 더 많이 발행하여 우리 당사업, 당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이 되고, 출판사가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언제나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착각하여야 한다고, 로동당출판사가 당사업, 당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출판물들을 발행하는 여가에 다른 출판사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시며 출판사업이 자기의 성격에 맞

게 편집출판활동을 솔직히 벌어나갈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먼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당분론을 편찬발행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시상교양사업에 필요한 출판물들을 훌륭하게 집필, 편집, 발행하는것이 출판사업의 기본인무라 고 하시며 조선로동당출판사가 출판물 선진활동을 혁명적으로 벌어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확히 밝혀주시였다.

당의 창건과 함께 첫걸음을 떤 조선로동당출판사가 자기의 사업과 역할을 제강화하고 강의방법의 귀중함을 알자고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당의 믿음직한 사상선진기관으로 첫걸음을 힘있게 떤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준엄했던 전회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출판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온 출판선진기관으로 수평은 당출판선진물과 정치교양도서를 편집 발행하여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전정승리예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어머수령님께서서는 창립을 기점으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출판선진기관으로 꾸려 주신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당의 출판사업의 혁명적전진모를 뚜렷이 갖추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원열수에 적극 이바지하는 위대한 기관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의 창립날자인 10월 23일은 출판사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모신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주제 49(1960년) 10월 23일 당시 당시상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출판물 집필 편집발행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출판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새로운 혁신을 확고히 하시기 위하여 이룩한 뜻을 잊지 않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수한 인품의 자재 앞으시여 출판사업의 책임일군들과 《우리의 뜻을 많이 펴고 선진물 대하야》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면서 우리의것을 내세우고 많이 선진하는것은 우리

당의 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라는 데 대하여 간곡히 이리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것을 내세우고 많이 선진하여야 할 필요성과 여기에서 당출판사가 지니고 있는 사명과 임무, 우리의것이 담고 있는 정치사상적내용을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당출판사업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것을 많이 출판선진하기 위하여 힘있게 노력한 한마디로 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명도해오시면서 이룩해놓으신 사상선진적 및 물질적비중입니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명도해오시면서 독자적으로 이룩해놓으신 모든 것이 다 출판하였으니 수많은 당출판선진물과 정치교양도서를 편집 발행하여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전정승리예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어머수령님께서서는 창립을 기점으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출판선진기관으로 꾸려 주신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당의 출판사업의 혁명적전진모를 뚜렷이 갖추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원열수에 적극 이바지하는 위대한 기관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의 창립날자인 10월 23일은 출판사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모신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주제 49(1960년) 10월 23일 당시 당시상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출판물 집필 편집발행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출판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새로운 혁신을 확고히 하시기 위하여 이룩한 뜻을 잊지 않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수한 인품의 자재 앞으시여 출판사업의 책임일군들과 《우리의 뜻을 많이 펴고 선진물 대하야》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면서 우리의것을 내세우고 많이 선진하는것은 우리

당의 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라는 데 대하여 간곡히 이리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것을 내세우고 많이 선진하여야 할 필요성과 여기에서 당출판사가 지니고 있는 사명과 임무, 우리의것이 담고 있는 정치사상적내용을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당출판사업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것을 많이 출판선진하기 위하여 힘있게 노력한 한마디로 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명도해오시면서 이룩해놓으신 사상선진적 및 물질적비중입니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명도해오시면서 독자적으로 이룩해놓으신 모든 것이 다 출판하였으니 수많은 당출판선진물과 정치교양도서를 편집 발행하여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전정승리예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어머수령님께서서는 창립을 기점으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출판선진기관으로 꾸려 주신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당의 출판사업의 혁명적전진모를 뚜렷이 갖추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원열수에 적극 이바지하는 위대한 기관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의 창립날자인 10월 23일은 출판사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모신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주제 49(1960년) 10월 23일 당시 당시상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출판물 집필 편집발행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출판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새로운 혁신을 확고히 하시기 위하여 이룩한 뜻을 잊지 않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수한 인품의 자재 앞으시여 출판사업의 책임일군들과 《우리의 뜻을 많이 펴고 선진물 대하야》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면서 우리의것을 내세우고 많이 선진하는것은 우리

가야 할 장군님의 유훈중의 유훈으로 높이 새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료베없이 임혹한 시련속에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1990년대에 이어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출판사업이 주체혁명위업에서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을 새겨가게 지켜주시는 사상적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깊은 뜻을 모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 나날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편집 발행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혁명적사상도서를, 혁명도서를 비롯한 도서들과 잡지들, 선진선진자료를 많이 보내주시고 파본한 평가를 주시면서 정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신 사실도 있고 해방직후부터 당당을 믿고 따르던 한 문필수의 정치적생명을 되찾아 우리 당혁명사에 감동깊은 사명을 수행하신 사연도 있었고 수많은 기계들과 설비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어 출판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든든히 다져주시신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출판선진기관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조선로동당출판사의 경우에 하시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있던 앞으로는 수령님의 저작이나 전집과 같은 큰 문헌집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수령님의 로작을 편찬하는 부서를 따로 내오고 거기서 독자적인 사업을 맡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뜻을 많이 출판선진하는 데서 혁명적사상공세의 모범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교양자료와 참고자료들을 많이 펴는 데에 대한 문제, 일군들속에서 당시상사상체계를 펼쳐 세울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출판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날의 강령적인 교시는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향을 가져오게 한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으며 오늘날 출판사업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의 가슴마다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

는 알을 풍금할게 아니라고 절실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새겨안은 순간 일군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마리의 희귀한 닭을 보시면서 자신의 기쁨과 먼저 인민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더더욱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 뜻깊은 그날 일군은 그것이 아무리 새롭고 아름다웠다고 하여도 우리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줄 수 없는것이아닌가 싶어 무미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신 인민을 위한 절대적기준임을 심장으로 새겨안게 되었다.

정녕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늘 사색하고 마음 쓰시는 어머수령님께서 있어서는 모든것의 유일한 평가기준은 오직 인민의 이익이고 행복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본사기자 김 일 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04호

주제104(2015)년 10월 22일

우 정 희 동 지 에 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음악예술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불타는 창조적열정을 발휘하여 인민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명곡들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최후승리를 향하여 풍폭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데 크게 기여한 우정희동지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웰 동 용이아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애국렬사 연형목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애국렬사 연형목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신미리에국렬사봉에 있는 그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것에 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연형목동지의 묘앞에 놓여졌다.

화환전경에는 김용진대각부총

인민을 위한

정 령

주제104(2015)년 10월 22일

우 정 희 동 지 에 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음악예술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불타는 창조적열정을 발휘하여 인민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명곡들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최후승리를 향하여 풍폭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데 크게 기여한 우정희동지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웰 동 용이아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애국렬사 연형목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애국렬사 연형목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신미리에국렬사봉에 있는 그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것에 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연형목동지의 묘앞에 놓여졌다.

화환전경에는 김용진대각부총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 개막

정 령

주제104(2015)년 10월 22일

우 정 희 동 지 에 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음악예술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불타는 창조적열정을 발휘하여 인민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명곡들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최후승리를 향하여 풍폭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데 크게 기여한 우정희동지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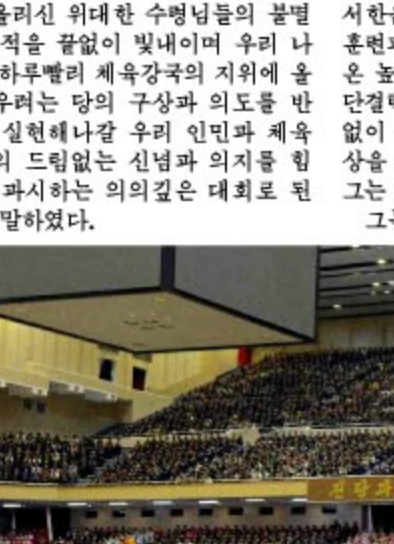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웰 동 용이아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애국렬사 연형목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애국렬사 연형목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신미리에국렬사봉에 있는 그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것에 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연형목동지의 묘앞에 놓여졌다.

화환전경에는 김용진대각부총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 개막

정 령

주제104(2015)년 10월 22일

우 정 희 동 지 에 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음악예술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불타는 창조적열정을 발휘하여 인민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명곡들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최후승리를 향하여 풍폭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데 크게 기여한 우정희동지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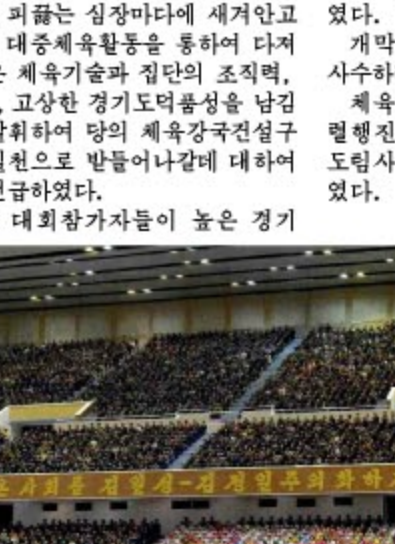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웰 동 용이아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애국렬사 연형목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애국렬사 연형목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신미리에국렬사봉에 있는 그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것에 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연형목동지의 묘앞에 놓여졌다.

화환전경에는 김용진대각부총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사업관철로 들끓는 세포전역

멸사복무의 각오로 펼쳐는 공격작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중앙현장지휘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군인들과 동격대원들의 양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계획한 투쟁목표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은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신로 통상장전 70년째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을 크나큰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고 들끓는 가운데 열매진 평양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1단계진행정형을 총화하는 모임이 있었다.

여기에는 성, 중앙기관, 해당공장, 기업소, 각 도책임일군들과 그리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위원회와 여러 관핵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열매진 우리는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뜻깊은 10월의 명절을 승리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신 자를 보고 당을 따라 세기준, 새 기록창조의 천마리걸을 이어가려는 건설자들의 기세가 실연으로 이어지게 하는에서 어떤 문제를 중시하고있는지 알고 싶다.

부책임자 리경식:현재 우리 앞에는 이미 조성된 불꽃들에 대한 비배관리로 더욱 피고들며 정간간 하우리를 비롯해서 축산물가공기지를 비롯한 대산건설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기된 과업은 반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낼수 있다는 신념에 넘쳐있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직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밝혀주신 승리의 리정표가 있다.

자기의 전투장을 당중앙위원회 드락과 같이 여기고 당과 실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정성을 다해나갈 불타는 열에 충만한 건설자들의 대무문제가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난 시기의 건설과업이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단적으로 책임지려는 리정에서 대담하게 결심하고 창조적으로 실천한 일군들이 있는 시공단위로는 제외없이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기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열매가 섰지만 그렇지 못한 단위들도 있었다.

이처럼 실적이 높은 단위와 그렇지 못한 단위들이 생긴것은 고작에 의한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당정책관철에 대한 관점과 리정에서의 차이를 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1단계건설정형에 대한 총화에서 참가자들은 이 사실을 놓고 큰 교훈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단위 일군들과 창조적시혜와 힘을 합쳐 제기되는 로직과 실비, 자재의 긴장성을 자력강성의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다.

기자:세포통반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의 불탄을 조성해놓은것만큼 비배관리를 잘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부책임자 리경식:우리는 이번 불탄조성과 비배관리정형을 분석총화하면서 토지개발을 기술적으로구대로 잘하고 인공불탄에서 먹이들의 밀도를 정확히 보장하여 기계화실현을 위해 토질을 주요있게 정리하는것을 비롯하여 먹이풀생산은 높이는것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찾아 되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당면과제는 불탄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먹이들의 겨울나이를 높이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우리는 시공단위에서 집집송 배설물과 진귀를, 나무재 등을 리용하여 먹이들의 영양관리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또한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물격대와의 면제일에 농약을 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병해충을 구제하며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조건에서 발생할수 있는 병해충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바람막이숲, 보호림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면서 빈지리에 나무를 더 심기 위한 사업도 짜고 들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명명해주신 《애국들》을 대대적으로 제배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종자확보와 적지선정을 진행시키는것과 함께 줄기마디와 뿌리를 보완하여 다중식식설수 있는 태양열은열건설대계를 세우는 등 다음해 먹이물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있다.

부책임자 리경식:대산건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둔 성과가 크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특히 축산물가공기지는 현재 우리가 주되는 힘을 집중해야 할 중요건설대상이다.

우리는 당의 뜻대로 훌륭한 축산물가공기지를 하루빨리 세워주기 위해 이미 계획이 분기항부를 꾸리고 힘있는 건설철수와 수단들을 집중시키며 이어 최근 수백명의 토력을 더 동원시켰다. 그리고 세인트플루톤을 자재까지 선행보장하였다.

지금 우리는 목장들의 구내에 콩크리드보도로만이 아니라 지형조건에 따라 흙도로도 건설하는 등 혁신적인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기자: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부책임자 리경식: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사업에 대한 시공지도와 감독사업을 짜고들어 건설물들의 질을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의 건축물답게 화상의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절대적으로 삼고 대산건설사업자적부품 공업별 감독사업을 따라서세우며 요구성을 높여 시공단위에서 질을 철저히 보증을 보증하는구호 당을 넣었다. 또한 시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전방면인 시공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하였다.

우리는 자기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는것과 함께 질보증을 위한 새로운 방도를 적극 연구 도입함으로써 당의 뜻대로 세포지구에서 일떠서는 모든 대상들이 용도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쓸모가 있으면서도 자연중지와 잘 어울리고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되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천년을 책임지고 믿음을 보증하는 구호 당을 받들고 조국을 사랑하는 총정과 애국의 구호, 깨끗한 함성과 실천의 구호로 되도록 하였다.

체신성려단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아라

수십개의 이동통신기지, 여러개소에 TV중계소를 건설, 수백km의 유선통신망 건설...

체신성려단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이 당창건 100주년을 맞아 내세웠던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기세로 계속 혁신하고있다.

일군들이 이 성과를 높고 앞으로의 전투목표수행을 위해 귀중한 경험으로 찾은것이 있다. 그것은 당의 뜻대로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마쳤던 문도 열리고 정령 못할 요새도 없다는 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름,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애국주의, 보신주의, 애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통신망을 형성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당시 공작구간과 기일을 대폭 줄일수 있었다.

결국 그 방안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려단에서는

체신성려단에서

로직과 자재를 적게 들이며 통신망을 빨리 형성하여 축산기지건설과 기지운영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할수 있었다.

굳어진 사고방식과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롭게 착상하며 실천할 때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일군들이 자로 통신망형성작전을 실리있게 한 사실은 더 보자.

세포지구 축산기지관리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통신망건설과 그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군들이 여러 군데 일떠섰을 때였다. 기지관리운영사업을 원만히 하려면 여기서 과학기술자로서의 열매와 자로교과를 할수 있는 통신망을 형성해야 하였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 군소재지와 매진 속물사이에서 망형성을 위한 빛섬유를 따르며 놓여야 하였다. 이 공사에 필요한 로직과 자재, 시간은 적은것이 아니었다.

기성의 방법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김정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사색한 끝에 묘안을 찾았다. 여러대의 실비만 갱신하면 이미 건설한 통신망하부구조를 기본적으로 리용하는 방법으로 자로 통신망을 형성할수 있었다. 이들은 과학적인 리산을 면밀히 한 후 성일일군들의 적극적인 방

조범에 이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었다.

그러하여 원가를 훨씬 절약하면서도 여러 지역에 자로통신망을 형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되었다.

김정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사색한 끝에 묘안을 찾았다. 여러대의 실비만 갱신하면 이미 건설한 통신망하부구조를 기본적으로 리용하는 방법으로 자로 통신망을 형성할수 있었다. 이들은 과학적인 리산을 면밀히 한 후 성일일군들의 적극적인 방

결사관철의 투쟁기풍

축산물가공기지건설장에서

공정들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풍이 큰 전투가 벌어졌다. 결과 종전보다 건축속도를 높이며 며칠동안에 1만여㎡의 흙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에 동원된 수도건설위원회대원의 투쟁기풍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반대파 많은 대산건설장에 수백명의 로직과 여러대의 른전기제들이 증가된 가운데 위원회책임일군이 현지에 나와 전투를 앞장에서 지휘하였다.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열의만에 종전예비태 뺏배나 많은 모래와 골재 보장을 선행시켜 이미 건설하던 건물들의 내외부벽체미장질을 붙이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갔다. 이들은 7만 8천여㎡의 부지에서 진행되는 수십개의 대산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리체전을 작전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기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건설장에서는 건축공사와 함께 지대정리, 실비조립, 수지상 문제작과 설치를 비롯한 여러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열의만에 종전예비태 뺏배나 많은 모래와 골재 보장을 선행시켜 이미 건설하던 건물들의 내외부벽체미장질을 붙이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갔다. 이들은 7만 8천여㎡의 부지에서 진행되는 수십개의 대산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리체전을 작전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기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같은 조건에서 높아진 실적

조선대양총회사들격대에서

모락대의 로직과 수단은 그건과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실적을 더 높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 집착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창고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은 지난해먹이 물생산결과를 놓고 생각이 깊었다.

자기 단위보다 먹이물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단위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었다.

당시 단위들은 한달한시에 집중하였는데 실연에서는 왜 차이가 생겼는지 어느 단위로 띠와 수단이 강하고 심한 가물의 영향도 같이 받았다.

이처럼 조건은 같지만 실적이 다른것은 우리 일군들의 당정책관철에 대한 관점과 일본에서 사자가 있기때문이라하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2일 오사나미 히로구나 중앙집행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인사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세계사주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위업수행에 쌓아 올린 거대한 공적과 위업적

공로로 하여 세계정치적 원로인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우리들 모두가 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일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에서 생건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물들이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있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기회에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멜로보존실 등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었다.

천내군의 백살장수자가

밭아안은 크나큰 은정

천내군 통당로동자구 83인민반에 기쁨이 넘쳐났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때때로 생일을 맞는 막걸니할머님께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꿀맛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신근장정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범한 늙은이의 생일상까지 마련해주신 것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감격을 감지 못하였다.

우바대사관 성원들

화성읍삼남농장에서 친선로동

헤르만 에르빈 베라스 알바레스 주조 우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2일 조선 우바친선 화성읍삼남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또다시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위협하고 긴장국화를 불러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은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를 순양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진행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대회 봉화채화의식이 2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정춘거리에 있는 무도봉화대에서 재회된 봉화는 올해 12월 인디아에서 열리는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개막식의 봉화대에 지켜지게 된다.

의식에는 김명근 국제무도경기위원회 대표, 리용신 국제대련도련맹 총재, 김정호 조선대련도련맹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태권도선수들, 시인의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국제무도경기대회가 앞으로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거대한 규모로 발전할것이라는 데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가 세계 여러 나라 무도조직들사이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또다시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위협하고 긴장국화를 불러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은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를 순양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진행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대회 봉화채화의식이 2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정춘거리에 있는 무도봉화대에서 재회된 봉화는 올해 12월 인디아에서 열리는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개막식의 봉화대에 지켜지게 된다.

의식에는 김명근 국제무도경기위원회 대표, 리용신 국제대련도련맹 총재, 김정호 조선대련도련맹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태권도선수들, 시인의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국제무도경기대회가 앞으로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거대한 규모로 발전할것이라는 데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가 세계 여러 나라 무도조직들사이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가는

같은 조건에서 높아진 실적

조선대양총회사들격대에서

모락대의 로직과 수단은 그건과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실적을 더 높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 집착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창고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은 지난해먹이 물생산결과를 놓고 생각이 깊었다.

자기 단위보다 먹이물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단위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었다.

당시 단위들은 한달한시에 집중하였는데 실연에서는 왜 차이가 생겼는지 어느 단위로 띠와 수단이 강하고 심한 가물의 영향도 같이 받았다.

이처럼 조건은 같지만 실적이 다른것은 우리 일군들의 당정책관철에 대한 관점과 일본에서 사자가 있기때문이라하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2일 오사나미 히로구나 중앙집행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인사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세계사주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위업수행에 쌓아 올린 거대한 공적과 위업적

천내군의 백살장수자가

밭아안은 크나큰 은정

천내군 통당로동자구 83인민반에 기쁨이 넘쳐났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때때로 생일을 맞는 막걸니할머님께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꿀맛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신근장정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범한 늙은이의 생일상까지 마련해주신 것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감격을 감지 못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명근대표가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에 보내는 화물

